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1열왕19,9ㄱ. 11-13ㄱ
 [화답송] 시편85(84),9ㄱ-ㄴ과10. 11-12. 13-14(◎ 8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제 2독서] 로마9, 1-5
 [복음 환호송] 시편130(129), 5참조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복음] 마태14, 22-33

성가	8시 미사	입당 480	봉헌 215 221	성체 160 170	파견 19
	11시 미사	입당 480	봉헌 215 221	성체 160 170	파견 1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9주일(8월 10일)		연중 제20주일(8월 17일)		연중 제21주일(8월 2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이바오로(명국)	김말가리다(미숙)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심미카엘(태규)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최베네딕토(환준)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김안젤라(영선)	손리디아(정옥)	최베네딕다(수영)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말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마태 14, 27)

물 위를 걷어가는 베드로 사도 보다 물에 빠진 베드로 사도가 더 부러운 시기이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베드로 사도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을 품자 그만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까!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특별한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베드로 사도처럼 ‘특별한 은총의 순간’ 에도 결코 주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시선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결국은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풍량이 이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면! 물 위를 걷는 순간에도, 물에 빠진 순간에도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요청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순간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해답인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께 시선을 두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배에 오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기적과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이나, 시련의 순간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뵈고, 자신 역시 걸어보면서 대화하는 과정은 모두 물 위에서 진행

되었다. 물 위를 걸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풍랑 때문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울타리 안에 함께 계심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는 바람이 그쳤다. 내가 믿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마태 14, 27)

윤하용 베네딕도 신부
인천교구 (주)바다의 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

부제반에서 30일 피정을 할 때였습니다. 지도 신부님은 하루 네 개의 성경 말씀으로 1시간 정도씩 묵상기도를 시켰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상황 그대로를 상상하며 때로는 성경속의 인물로 빠져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묵상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는 대부분 시간을 공상 속을 헤매다가 분심 끝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복음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처음 한 발을 딛기가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밑이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못가서 무서움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 그만 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몸이 흔들리고 휘청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느낌이 왔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정도 믿음밖에 안되나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너무 슬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기도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뛰니다. 우리가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란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에 허덕이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질책이라기보다 격려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부족해 물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쉽게 유혹에 빠지고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해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우리 안에도 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손은 내밀기만 하면 잡아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엽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자식의 은혜

말씀의 향기

너 몇 살이니? / 15살요.
 엄마는 지금 몇이신데? / 15살요.
 임마, 네 엄마가 너하고 쌍둥이란 말이나?
 엄마는 저를 낳고서야 엄마가 되셨데요.
 아빠두 맨날 제 덕분에 아빠 되었다고 하세요.
 그래그래 자식이 부모를 키워주지.
 평생이 걸리지만 부모 되게 해주지.

위의 소품은 어느 해 어버이날에 발표했습니다. ‘시’ 라는 언어 예술은 평범을 뒤집은, 거꾸로 발상에서 쓰여 집니다. ‘시’ 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은 물론 새로운 발명, 발견 등 모름지기 창조는 모두가 평범을 뒤집어야 독창적이 되니까요.

밤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키운 저에게 자식을 주시어, 자식을 통해 저를 키우시는 주님은, 내 아이들은 속 썩이지 않게 키워 주셨지만, 저의 욕심으로 더 기도하게 되곤 했습니다.

아이가 단신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직장을 주셨고, 기다리기 전에 손자, 손녀를 주시어 잘 키워 주시지만, 엄마로서의 염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은혜로 자란 저는 자식 덕분에 반성하게 됩니다. 자식 덕에 부모 되어, 참 부모님이신 하느님 심정을 짐작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내 자식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줄을 알게 되니, 이것이 자식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직업 안 갖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한 줄은 나중에 며느리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직장을 나가는 엄마가 얼마나 싫었으면... 새삼 미안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 이란 옛말도 실감났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무한 참고, 무한 용서하고, 과 썸해도 금방 잊고 더 주고 싶어져 내 삶이 온통 엄마로서의 삶이 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 니 내 마음보다 몇 천만 배나 더 우리에게 그러 하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란 호칭도 좋지만, 어머니 하느님이면 더 좋을 텐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꺼안은 아버지의 두 손이 어머니(여자)손과 아버지(남자)손인 것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말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참 자식으로 만드시느라고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마치 하느님께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인 내 마음 알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러 자식에게 갇히지 말라는 말씀도 들지만, 자식 가진 부모 의식이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 연령이 되니 모두가 나보다 어려 보여서 모두가 내 자식들 같고 내 손주들 같습니다. 아들 가족이 외국에 살아서 더 기도하게 되고, 딸애가 미혼이라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에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느님 심정이 내 심정보다 몇 천만 배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 이것이 자식 은혜 아닌가 합니다. 자식 덕에 부모 되어 참 부모 하느님을 더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유안진 글라라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성찬례는 사실 지상에 나타난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입니다. ... 이러한 기대는 현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킵니다.”

글_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 는 성체성사로 산다」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가톨릭전례

기도의 싸움

1) 청원 기도

어떤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MC 교육에서 ‘결혼은 힘든 싸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즉시 평화를 느끼고, 청원 기도를 하면 금새 그 응답이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2) 겸손한 기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 중에 생기는 분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분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부러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는 잠깐잠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 문제 없습니다. 다시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기도 중에도 분심이 느껴지면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분심 앞에서 걸려 넘어져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마음의 메마름입니다. “전에는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인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메마름도 기도의 필수적인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는 고뇌와 무덤 속에서 예수님

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입니다.

3) 자녀다운 신뢰의 기도

기도할 때 겪는 특별한 어려움은 자신을 위한 청원 기도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전구하는 청원 기도에 관련됩니다. 자신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여긴 나머지, 기도를 그만두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청원이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청원한 후에 효과가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에게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37항).

4) 항구한 사랑의 기도

기도할 때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기도와 생활의 분리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 의심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곧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미운 사람이나 가난한 이웃들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6-17)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8월 10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양사도요한(재균)
	연	이마리아(정재)	임루시아
	연	박베드로/마리아	박데레사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넷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본당신부님	김유릿다
	생	박마리아(영자)	찬미성가대
	생	김클라라(남경)	성우술라
	생	부필로메나/클라라	부필로메나
	생	전클라라	임안젤라
	생	육아오스딩	육아가다
	생	신마태오	신빈첸시오
8월 1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김데레사
	연	박순천	황안나
	생	육마이클(창우)	육아가다
8월 13일 수	생	고혜련 생일	황안나
8월 14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8월 15일 금	연	박마리아(복임)	엠포트리샤
	생	유마리아(혜선)축일	은총의어머니Pr.
	생	유마리아(혜선)축일	정분다
8월 16일 토	생	배점마 생신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최세레나(영자)축일	은총의어머니Pr.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0	226	-	316
헌 금	\$586	\$1,475	-	\$2,061

< 교무금 > \$2,830

허순구(7-8) 강수영(7) 임윤택(6-8) 전숙희(8)
 송분학(8-9) 김순이(8) 남금지(8) 채용분(8)
 김영순(7) 전덕천(7-8) 정진희(8) 천종욱(8)
 이윤자(1-7) 황정희(8) 김옥녀(8) 심재구(7-8)
 김용식(8) 김관수(6-7) 김승우(8-9) 육승주(8)
 이명란(7-8) 전문자(8) 김종성(7-8) 이창용(7-8)
 김정복(8)

< 성소후원금 > \$290

임윤택(6-8) 전숙희(8) 송분학(8-9) 김순이(8)
 채용분(8) 정진희(8) 이명란(7-8) 김용식(8)
 조진행(6-10) 김정복(8)

< Bishop's Appeal >

이건용(1-12)

< 감사헌금 >

임윤택 \$100 이규주 \$500

* 이규주 시몬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10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부필로메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의무축일)  
8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 약정하신 2014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평협회의 : 8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대건산악회 8월 특별산행 안내

일시 : 8월 12일(화) 8:00AM 까지 성당 주차장에 집합  
장소 : Half Moon Bay, Purisima Creek Redwoods  
지참물 : 참가비 \$10, 점심식사, 음료수, 등산장비 등  
문의 : 510-847-3014

◆ 방효익 신부님 여름 특강

일시 : 8월 31일(주일) 오후 1시 - 3시 15분  
주제 : 공동체와 신앙생활  
준비물 : 성경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이 제공됩니다.

◆ 향심기도 피정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SF 성마이클 성당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문의 : 정승식 요한보스코 415-203-0412

| 8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1-12장           |
|---------|--------------|------------------------|
| 2 구역    | 8월23일(토) 6시  | 엄성섭 시몬 댁               |
| 4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종규 미카엘 댁              |
| 5 구역    | 8월24일(일) 10시 | Lake Chabot            |
| 7-2구역   | 8월17일(일)미사후  | Lake Chabot            |
| 8-1구역   | 8월16일(토) 5시  | 심연자 데레사 댁              |
| 8-2구역   | 8월16일(토) 12시 | UC Village Cross Rd. # |
| 9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경섭 요셉 댁               |

◆ 주일학교 등록 안내

개강 : 8월 31일  
등록비 : 1인 \$30, 2인 \$50  
접수 : 친교실

◆ 성물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클라라(8/11) : 박영자, 김영숙, 이육경, 김남경, 박경림, 이수인, 권선, 이경은, 임은석, 김순희, 김미연
- \* 필로메나(8/11) : 부정숙
- \* 막시밀리아노마리아콜베(8/14) : 조암
- \* 마리아(8/15) : 허은희, 박영자, 박덕희, 이현옥, 유혜선, 조상희, 장선
- \* 세레나(8/16) : 최영자, 박동신

안국약교 소식

- 개강 : 9월 6일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